

# 도 감사위 도정홍보사업 감사결과 발표

### 최근 3년간 31건 조사... 부정적 처리 기관 경고 및 통보 특정업체 특혜·배임행위 A 공무원 '중징계' 요구 등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의회에서 제기한 '도정홍보사업' 관련 감사결과를 지난달 28일에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한 도정홍보사업 31건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언론에 제기된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도정홍보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지역사랑에 대해서는 27일 감사위원회 심의 후 '도정홍보사업' 특정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감사결과 도정홍보사업 담당공무원 A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A는 B업체 대표 K와 공모해 6건(1억1,0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5개 업체 명의로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B업체 대표 K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원)에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 3개 업체에게 약 600여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도정홍보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시켜 약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와 같이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A공무원 및 A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의혹을 철

저히 밝히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게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양충모 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북미 식품시장 개척을 위해 뉴욕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뉴욕 펜시푸드쇼(Summer Fancy Food Show 2024)'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 도, 우수 식품으로 뉴욕커 사로잡다

### 북미 최대 식품박람회 '팬시푸드쇼' 전북 농식품 홍보관 운영 바이어 상담으로 샘플 계약 3만발 · 수출 상담실적 95만발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북미 식품시장 개척을 위해 뉴욕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뉴욕 펜시푸드쇼(Summer Fancy Food Show 2024)'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뉴욕 펜시푸드쇼는 미국과 전 세계 특수 식품류 기업이 참가하는 B2B 무역 전문 전시회로 북미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업체는 3개사로 유자차, 딱볶이소스, 어간장 및 추어탕 4개 품목을 홍보·전시했으며, 북미 및 세계 각국의 식품 전문 바이어와 열린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 3만발의 샘플 계약과 약 95만발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 식품시장은 2025년 1조 478억여 달러의 매출이 전망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 소매 부분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김관영 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최대의 한인 식품 유통업체인 H마트 및 한남체인과 전북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 현지 판촉·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월에는 H마트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전북자치도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어와 열린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에서 딱볶이소스를 생산하는 A기업의 경우 미국 현지 바이어인 S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 발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익산에서 유자차를 생산하는 B사는 미국 현지 유통 바이어와 미팅으로 향후 공동방문 및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뉴욕펜시푸드쇼 참가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북미 바이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바이어를 만나 세계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현재 포지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최재웅 농생명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품이 북미시장의 다양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해, 올해 10월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수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 있으며 최근 5월에는 H마트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전북자치도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어와 열린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에서 딱볶이소스를 생산하는 A기업의 경우 미국 현지 바이어인 S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 발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익산에서 유자차를 생산하는 B사는 미국 현지 유통 바이어와 미팅으로 향후 공동방문 및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뉴욕펜시푸드쇼 참가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북미 바이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바이어를 만나 세계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현재 포지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최재웅 농생명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품이 북미시장의 다양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해, 올해 10월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수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디지털농식품 푸드테크 미래 신산업 선도

### 과기부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140억원 확보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공모사업 선정돼 총사업비 280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 중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과기부 '지역자율형 디지털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수요기반의 강점과 특징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기업 등 디지털산업을 육성하는 선도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관한다.

도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140억원 등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식품 제조공정 데이터(data) 표준화,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실증을 핵심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농식품산업은 원료·재배·제조·물류·유통·서비스 모든 단계에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한 품질

유지가 어려운 산업이다. 해결책으로 농식품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식품제조업체의 수요가 높은 K-소스, 대체육, 음료, 포장 등 4개 식품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 및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데이터의 수집·분석·학습·활용을 위해 푸드테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 실증 등 주요 사업에 도내 식품기업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권 기업의 이전, 분원·연구소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기업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기존 식품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농식품 푸드테크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택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식품산업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전북자치도가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주한중국대사관 초청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국 사장이 왕쯔린(王治林) 주한중국경제사무공사 일행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및 새만금 지역개발에 대한 중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 전북자치도,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971억원 펀다

###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전북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는 총 971억원 규모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31억원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 △경영안정자금 35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수요가 가장 높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전분기 대비 381억원 증액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역 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82%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은

행이 설정한 대출금리에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2~3%를 제외한 금리를 부담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자금별 신청 일자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7월 1일부터 5일, '경영안정자금'은 7월 8일부터 12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7월 15일부터 19일, '지역 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자금별 각 신청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jok.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받지 않는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소과(063-280-3228)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주섭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소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 자금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청 "현재 40% 저공해 차량 운용 중"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현재 40%의 저공해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0대의 차량 중 전기차 1대, 하이브리드 3대를 입차 운용 중에 있어 40%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이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용 중인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특사경, 여름철 다소비 식품업소

### 오늘부터 12일까지 위생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식음료음, 냉면음수 제조·가공업체 및 냉면, 빙수 등 전문점 5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제조공정 및 기계·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모기상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등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건축문화제 행사

### 건축문화상 참여 작품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행사의 건축문화상 참여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올해 25번째를 맞이하는 건축문화제는 도와 도내 건축 관련 5개 단체로 구성된 (사)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 공모로 개최돼 4개 분야 23개 행사로 추진된다.

건축문화상 작품 모집은 사용승인(일반)부문, 학생 부문과 드로잉·사진 등 총 3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공모한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건축문화상에 도내 우수한 대지의 조정(단독·공동주택) 공간 선정의 신선헌도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 녹지로서 탄소 중립과 도시미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접수 예정이며, 출품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 도지사상과 각 단체장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를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청 1층 로비 및 전시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제2기 전북 자경위, 이달 한달간 정책공모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이하 자경위)가 제2기 출범을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체를 위해 본격적인 도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민과 전북경찰청 경찰관을 대상으로 '2024 전북 자치경찰 정책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예방 △치안약자(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분야이다.

자경위는 이번 공모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와 관련한 제도, 시설개선 등과 더불어 일상생활 주변에서 느꼈던 소소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는 방침이다.

응모는 전북 자치경찰에 관심이 있는 도민과 전북경찰청 경찰관이면 누구나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책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 정읍시의회, 정례회 폐회... 전반기 일정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8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석환 의원은 사계절 체류형관광지 기반구축 현황, 정읍현 합플레이스 추진계획 등, 한선미 의원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아파트신축 허가 현황 등, 고성현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정책, 교육지원사업 현황 등, 이도형 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 역사·문화 지원 관광발 방향 등, 서향경 의원은 이도형 마트트러 시범 제안, 민간 지원사업 특정감사결과 및 대책 등 이 상길 의원은 산림지원 활용 추진현황 및 계획, 폐농기계 관리 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년이면 다뤄야 사회도 아름답다'를 역설하면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시행을 강조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서향경·송기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합교시 의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스토킹에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조산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차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현)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 후 정례회를 끝마쳤다. /정읍=김태환기자